

석유, 세금 내리자마자 수입급증!

산자부, 2월 17일 하루 1억8000만달러 수입 ... 정유회사 눈치작전 탓

정부가 고유가 시책에 따라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린 첫날인 2003년 2월 17일 엄청난 액수의 원유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월 17일 원유 수입액은 1억8000만달러를 웃돌았다. 통관일수 기준으로 2002년 월별 하루평균 원유 수입액이 7000만달러 안팎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2배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특히, 2월 원유 수입액이 17일 수입분을 포함해 10억8000만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수입액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하루에 석유 수입이 몰린 것은 정부가 고유가 2단계 대책에 따라 17일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을 들여올 때 부과하는 석유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7일 원유수입 증가로 하루 전체 수입액도 무려 8억2400만달러에 달해 2003년 들어 가장 많았다.

산자부는 정유회사들이 수입부과금 인하를 앞두고 수입을 최소화하다가 17일이 되자 보세구역 저장시설에 있던 원유를 통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 02/ 28>